

문화도시론은 1985년 유럽의회에서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icuri)가 제시한 ‘문화수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럽의 각 도시 중에서 문화수도를 정하고 제시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전과 유럽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 도시를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문화도시는 하나의 개념에서 담론으로 변화하였으며, 1985년 아테네를 처음으로 지정하며, 1986년 플로랑스, 1987년 암스테르담, 1988년 베를린, 1989년 파리카지 지정되었다.

1990년대 영국의 공업도시인 글래스고우가 문화수도로 선정되면서, 유럽의 문화수도는 전통적인 문화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잘 보전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 문화를 통해 혁신한 도시로서 문화적 재생에 성공한 도시에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적 수도, 도시에서 문화적 재생도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생과 추구하는 도시상의 문제인식과 이념이 문화를 창조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창조도시, 창조산업, 창조도시 요소(melting pot index, gay index, bohemian index) 등 창조도시발전의 전략이 제시되었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에 맞추었으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정체감 있는 도시경관, 문화적 요소를 초점으로 도시의 설계, 관리, 운영을 계획하였다. 창조도시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의 재생,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 인력과 기업 등 창조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